



조간 제 8153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음력 7월 12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내일 윤곽... 통합지역 우대 약속 지켜야

농협·수협 등 10대 핵심기관 포함 45곳 유치 목표
정부 '선택과 집중' 기조...반도체 산업 연계 승부수
유치 총력...행정통합 인센티브 실현 여부 최대 관심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25일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45개 기관 유치에 나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기존 분산 배치에서 벗어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에 기관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최초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약속이 실제 배정으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23일 광주특별시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대상과 배치 원칙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이전은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21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1차 이전에서는 153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했으나 기관과 인력이 여러 지

역에 흩어지면서 산업적 집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이전에서 지역별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집중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령도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처럼 기관을 분산하면 집중 효과가 떨어진다면 이번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모아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유치 대상을 기존 40개에서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전에는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했으나, 통합 이후 광주 군공항 일원의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투자계획에 맞춰 반도체·AI 관련 기관을 보강했다.

최우선 유치 대상인 10대 핵심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농협·수협중앙회를 유치해 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 금융을 하나로 연결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은 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 기능을 보완할 기관으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과 연계할 유치 대상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포함됐다.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융수 관리, 정보통신 표준·인증 기능을 집적해 반도체 생산부터 기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민주권과 사회적경제 분야를 뒷받침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추가했다.

또한 대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의 통합본사를 유치 대상에 반영해 에너지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광주특별시가 유치전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시한 우대 약속이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처서에도 이어진 무더위 절기상 처서인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엑스포공원에서 나들이객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양산을 쓴 채 붉게 만개한 백일홍 사이를 걷고 있다. 처서는 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을 맞는 시기를 뜻하지만 이날도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정무부시장 갈등’ 봉합...광주특별시 조직개편 속도

민형배 “조례 개정 후 후보 재지명”...송형곤 “후속 절차 협력”
4일·8본부·27국·144과 체제 구상...9월 정례회서 다뤄질 듯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 논의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민형배 시장이 정무부시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시의회가 후속 절차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 시장과 송형곤 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나주혁신도시에서 만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조례 불일치와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민 시장은 회동 이후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분장 사무에 따라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도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에 대응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조례 개정, 후보자 재지명, 인사 청문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먼저 지명했다는 시의회의 문제 제기를 민 시장이 받아들여 인선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전남광주시 행정기구 조례는 국가직인 행정부시장과 안전민생부시장, 지방직인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 등 4명의 부시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백승주·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산업·경제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를 담당할 지방직 부시장으로 지명했다.

시의회는 후보자의 담당 업무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지방직 부시장의 명칭과 분장 사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례 개

정이 인선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 시장이 조례를 먼저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의 중심은 인선 절차에서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옮겨가게 됐다.

광주특별시가 마련한 조직개편 초안은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에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이를 4명의 부시장이 나눠 맡는 구조다. 현재 7본부·24국인 한시 조직을 4일·8본부·27국·144과·담당관으로 확대·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시의회 의견을 토대로 조직개편안을 보완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8월 중 임시회 처리를 추진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면 9월 정례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는 조직개편안과 정무부시장 인사청문 일정에 대비해 제3회 제1차 정례회를 기존 9월 14~21일에서 9월 8~18일로 앞당기고 회기도 8일에서 11일로 늘렸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공공기관 숫자 배분 안돼...‘성장고리’ 설계를”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정책브리핑 통해 ‘3축 배치모형’ 제안
전남광주 상생지수 2위...‘지역 산업·대학·기업 연계’ 강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단순한 ‘기관 수 배분’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기업, 대학, 인재를 연결하는 ‘성장고리 설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 기준으로 △균형발전 필요도 △기관 기능 적합도 △지역활용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3축 배치모형’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차 이전처럼 어느 지역에

몇 개의 기관을 배치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경우 지역 간 유치 경쟁만 심화하고 기존 이전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의 예산과 조달, 연구, 교육, 데이터, 시설, 인제, 현장서비스 등이 지역 산업과 대학, 기업, 주민과 연결돼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상생지수 평가에서 광역지자체는 전북이 714.07점(A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고, 광주·전남은 686.21점(B등급)으로 2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나주가 652.37점(B등급)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단순히 종합점수가 높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추가배치하거나 낮은 지역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관을 나눠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면으로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삼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 김필식 이사장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시고 위로와 애도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슬픔 속에서도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삶 속에서 펼쳐 보이셨던 교육 철학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따뜻한 마음, 지역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잘 이어가겠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소중한 마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경황이 없어 먼저 글로 인사드리는 점, 너그러이 헤아려주시고 항상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강학원·해인학원 김필식 이사장 자녀 일동 배상

장남 이형석
장녀 이윤희
차녀 이주희
삼녀 이주연
사녀 이도연
오녀 이숙연